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및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Influential Factors for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An Application of Latent Mean Analysis and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및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청소년 438명이 분석 대상이다. 첫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또래애착 및 센터교사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자녀 대화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래애착 및 센터교사만족도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평균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대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성별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latent mean analysis and path analysis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nversation, peer attachment, satisfaction in teacher at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ego-resiliency,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in adolescents who attend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For this purpose, 438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4th(2017) questionnaire in the 2nd child panel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ere used. From the analysis results, first, peer attachment and satisfaction in teacher at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increased ego-resiliency and career identity, but parent-child conversation did not predict ego-resiliency and career identity. Peer attachment and satisfaction in teacher at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as fully mediated by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to career identity. Second, in the latent mean analysis, 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atent mean values in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than female students, while fe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atent mean values in parent-child conversation than male students. Third,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different paths to career identity between the genders. Peer attachment can buffer the effect of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of male students, but satisfaction in teacher at a community child care center buffers more on the ego-resiliency of femal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enhancing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is needed to encourage career identity, and that gender needs to be considered.

Keywords : Adolescent in Community Child Center, Social Relation, Ego-Resiliency, Self-Esteem, Career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April 29,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June 4,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목표, 흥미, 재능 등에 대해 얼마나 명료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진로정체감[1 재인용]은 청소년의 진로결정[2-3], 심리적 안녕감[4], 자기조절학습[5], 삶의 만족도[6] 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다. 진로 발달 과정에서 진로정체감의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연령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친구, 교사, 부모의 환경적 변인[5-7]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의 개인 변인[8-12]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가구 소득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지만[13],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진로 발달의 차이에 집중한 반면 상대적으로 진로 발달과 관련된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특성을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특성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 진로와 관련된 학습기회 및 환경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4].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적 특성 변인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 중 하나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15-16].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 의사소통, 소외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또래애착[17]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18-1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와의 관계 및 교사애착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21].

또한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적 특성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22-23]. 이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많은 진로 탐색 활동이 촉발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주어진 상황의 맥락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자아 및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4]. 즉 자아탄력성은 환경 변화와 환경적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25].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에너지, 긍정성, 호기심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26]. 자아탄력성이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보호 기제이기 때문에, 진로 발달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9].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의미한다[30 재인용].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 진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로 탐색 및 진로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로 탐색 과정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31-3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33].

그동안 진로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진로 관련 변인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34-36].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다수 엄격한 측정 오차 통제가 어려운 t, ANOVA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는 측정학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측정 오차를 통제함으로써 더 정확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거나, 변인 간 영향 관계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37-38],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진로 관련 변인의 차별적 특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잠재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 잠재평균분석,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에 기초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청소년 응답 자료(출생 년도: 2003년~2005년)를 활용하였다. 아동패널조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종단자료이다. 지금까지 1기 패널은 6회(2011~2016년), 2기 패널은 4회(2014~2017)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39]. 본 연구에서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진로정체감 변인을 4차 조사(2017년)부터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조사 대상 중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응답 자료가 있는 청소년 43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자녀 대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대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는다(1점) ~ '매일(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39].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85로 확인되었다.

2.3.2 또래애착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또래애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3요인 중 신뢰도가 낮은 소외를 제외한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의 2요인을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신뢰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9]. 분석 시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의사소통 .83, 신뢰 .84로 확인되었다.

2.3.3 센터교사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센터교사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센터교사만족도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9]. 분석 시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90으로 확인되었다.

2.3.4 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9]. 분석 시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86으로 확

인되었다.

2.3.5 자아존중감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나에게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분석 시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78로 확인되었다.

2.3.6 진로정체감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분석 시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86으로 확인되었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 데이터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4차 조사(2017년)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icareinfo.go.kr>)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사용하였다.

SPSS 20.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문제1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타당성 및 경로 계수를 해석하는 2단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각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항묶기 (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문제2를 확인하기 위한 잠재평균분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문제3을 확인하기 위한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순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분석, 잠재평균분석,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모두 모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 χ^2 , TLI, CFI, SRMR,

RMSEA 값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모형 간 차이 검증은 χ^2 차이검증, CFI 차이 검증, RMSEA 차이검증을 함께 사용하였다[40 재인용].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222명(50.7%), 여학생 216명(49.3%)이며, 출생 연도는 2003년 3명(7%), 2004년 424명(96.8%), 2005년 11명(2.5%)이다. 센터소재지는 서울 및 수도권 148명(33.8%), 충청 및 강원권 78명(17.8%), 경상권 106명(24.2%), 전라 및 제주권 106명(24.2%)이며, 센터이용 시작연도는 2010년 이전 16명(3.7%), 2010년 35명(8.0%), 2011년 108명(24.7%), 2012년 62명(14.2%), 2013년 81명(18.5%), 2014년 60명(13.7%), 2015년 48명(11.0%), 2016년 22명(5.0%), 2017년 6명(1.4%)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38)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222	50.7
	Female	216	49.3
Birth year	2003	3	.7
	2004	424	96.8
	2005	11	2.5
location	Seoul metropolitan area	148	33.8
	Chungcheong-do, Gangwon-do	78	17.8
	Gyeongsang-do	106	24.2
	Jeolla-do, Jeju-do	106	24.2
	< 2010	16	3.7
Years for being community child center	2010	35	8.0
	2011	108	24.7
	2012	62	14.2
	2013	81	18.5
	2014	60	13.7
	2015	48	11.0
	2016	22	5.0
	2017	6	1.4

3.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검증

구조모형 분석, 잠재평균분석,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을 위해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측정변인이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1].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matrix

(N=43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70**	1																		
3	.53**	.58**	1																	
4	.56**	.49**	.62**	1																
5	.23**	.26**	.20**	.19**	1															
6	.14**	.20**	.15**	.09	.80**	1														
7	.25**	.23**	.13**	.14**	.31**	.32**	1													
8	.14**	.14**	.06	.09	.20**	.24**	.74**	1												
9	.24**	.21**	.12*	.14**	.23**	.26**	.71**	.74**	1											
10	.21**	.16**	.15**	.18**	.27**	.24**	.60**	.56**	.54**	1										
11	.26**	.20**	.15**	.19**	.23**	.23**	.64**	.64**	.66**	.73**	1									
12	.18**	.24**	.19**	.17**	.44**	.50**	.30**	.25**	.27**	.19**	.29**	1								
13	.14**	.21**	.15**	.12*	.43**	.47**	.27**	.22**	.23**	.19**	.27**	.74**	1							
14	.05	.17**	.14**	.05	.32**	.42**	.29**	.28**	.24**	.16**	.26**	.71**	.61**	1						
15	.10*	.19**	.09	.07	.38**	.45**	.30**	.27**	.24**	.19**	.24**	.55**	.62**	.52**	1					
16	.10*	.19**	.12*	.06	.29**	.39**	.23**	.19**	.16**	.16**	.19**	.42**	.45**	.44**	.58**	1				
17	-.01	.10*	.03	-.04	.13**	.22**	.16**	.17**	.13**	.11*	.12*	.22**	.24**	.28**	.34**	.57**	1			
18	.10*	.15**	.11*	.10*	.27**	.29**	.24**	.22**	.20**	.20**	.20**	.38**	.34**	.38**	.40**	.32**	.16**	1		
19	.08	.14**	.10*	.07	.28**	.33**	.27**	.25**	.24**	.22**	.24**	.44**	.40**	.45**	.41**	.35**	.18**	.77**	1	
20	.18**	.18**	.13**	.13**	.31**	.34**	.27**	.17**	.15**	.17**	.20**	.42**	.37**	.38**	.40**	.34**	.10*	.75**	.75**	1
<i>M</i>	2.16	2.70	2.29	1.87	3.19	3.23	4.11	4.29	4.08	4.12	4.11	2.92	2.95	3.08	3.16	3.10	3.18	2.89	3.00	2.82
<i>SD</i>	1.24	1.28	1.25	1.18	.60	.62	.84	.78	.94	.87	.85	.54	.56	.54	.61	.60	.72	.63	.64	.72
<i>Sk</i>	.96	.44	.78	1.39	-.42	-.48	-.80	-1.05	-.90	-.85	-.80	.25	.18	-.03	-.12	-.05	-.62	.03	-.10	.04
<i>Ku</i>	-.04	-.80	-.33	1.04	.35	.25	.74	1.27	.66	.59	.59	-.34	-.44	-.41	-.61	-.61	.02	-.41	-.57	-.54

* p<.05, ** p<.01, *** p<.001

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1), 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2), 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3), 4: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4), 5: Peer attachment: communication, 6: Peer attachment: trust, 7: Satisfaction in teacher(1), 8: Satisfaction in teacher(2), 9: Satisfaction in teacher(3), 10: Satisfaction in teacher(4), 11: Satisfaction in teacher(5), 12: Ego-resiliency(1), 13: Ego-resiliency(2), 14: Ego-resiliency(3), 15: Self-esteem(1), 16: Self-esteem(2), 17: Self-esteem(3), 18: Career identity(1), 19: Career identity(2), 20: Career identity(3)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438)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i>b</i>	SE	C.R.	β	AVE	CR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1)	1.00			.81	.48	.7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2)	1.03	.06	16.92	.8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3)	.90	.06	15.13	.7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4)	.81	.06	14.39	.69		
Peer attachment	Communication	1.00			.84	.92	.96
	Trust	1.17	.07	17.52	.96		
Satisfaction in teacher	Satisfaction in teacher(1)	1.00			.85	.72	.93
	Satisfaction in teacher(2)	.93	.04	21.42	.84		
	Satisfaction in teacher(3)	1.10	.05	21.02	.83		
	Satisfaction in teacher(4)	.88	.05	16.88	.72		
	Satisfaction in teacher(5)	.95	.05	19.68	.80		
Ego-resiliency	Ego-resiliency(1)	1.00			.78	.88	.96
	Ego-resiliency(2)	1.09	.06	18.19	.82		
	Ego-resiliency(3)	1.13	.06	19.63	.89		
Self-esteem	Self-esteem(1)	1.00			.51	.69	.86
	Self-esteem(2)	1.22	.13	9.70	.75		
	Self-esteem(3)	1.32	.13	9.90	.81		
Career identity	Career identity(1)	1.00			.87	.87	.95
	Career identity(2)	1.04	.05	23.29	.88		
	Career identity(3)	1.13	.05	22.22	.85		

* p<.05, ** p<.01, *** p<.001

Table 2의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패턴을 보면,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대체로 정적 상관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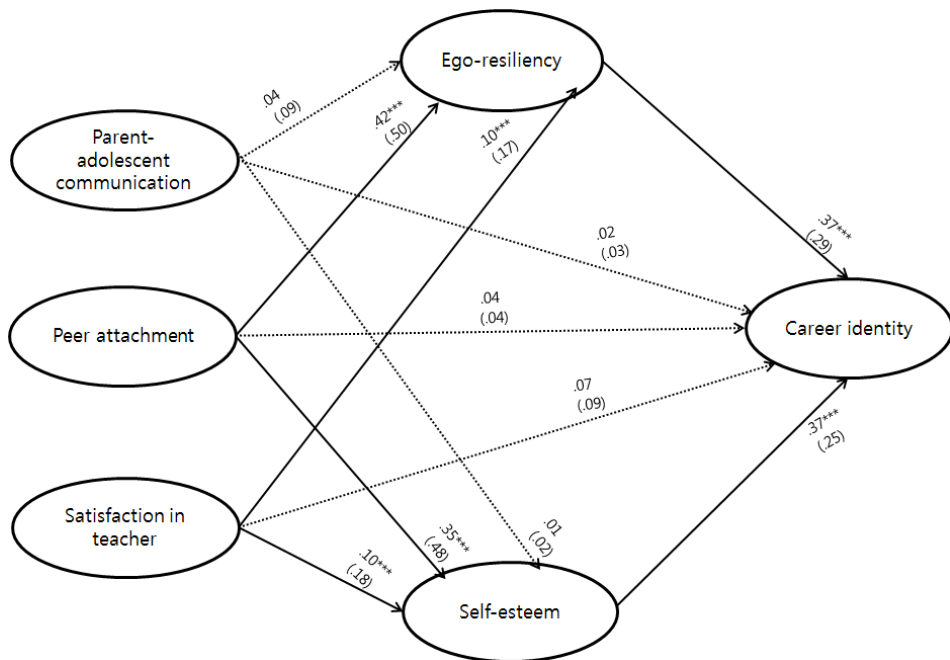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df=155, N=438)=473.512, p<.001, TLI=.924, CFI=.938, RMSEA=.069(90\% \text{ 신뢰구간}=.062\sim.076), SRMR=.045$ 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의 적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1개 변인을 제외하고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요인부하량이 .5 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7 이상의 수용 가능한 집중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공값이 AVE값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 재인용].

3.4 구조모형 검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를 Fig. 1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chi^2(df=155, N=438)=473.512, p<.001, TLI=.924, CFI=.938, RMSEA=.069(90\% \text{ 신뢰구간}=.062\sim.076), SRMR=.045$ 로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어 타당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Fig. 1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첫째, 부모-자녀 대화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beta=.50$), 자아존중감($\beta=.4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확인된 반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센터교사만족도는 자아탄력성($\beta=.17$), 자아존중감($\beta=.1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확인된 반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진로정체감($\beta=.29$), 자아존중감도 진로정체감($\beta=.2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Table 4. Direct effects in the model

Path	b	SE	t	β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Ego-resiliency	.04	.02	1.77	.09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Self-esteem	.01	.02	.39	.02
Peer attachment→Ego-resiliency	.42	.05	9.39***	.50
Peer attachment→Self-esteem	.35	.05	6.92***	.48
Satisfaction in teacher →Ego-resiliency	.10	.03	3.45***	.17
Satisfaction in teacher →Self-esteem	.10	.03	3.17***	.1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Career identity	.02	.03	.61	.03
Peer attachment→Career identity	.04	.06	.65	.04
Satisfaction in teacher →Career identity	.07	.04	1.79	.09
Ego-resiliency→Career identity	.37	.11	3.35***	.29
Self-esteem→Career identity	.37	.13	2.77***	.25

* p<.05, ** p<.01, *** p<.001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부트스트랩(Bootstrap, 5,000 회)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센터교사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Path	b	β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Career identity	.02	.03
Peer attachment→Career identity	.29***	.27
Satisfaction in teacher→Career identity	.07***	.10

* p<.05, ** p<.01, *** p<.001

Table 6. Specific indirect effect in the model

Path	b	95% CI
Peer attachment→Ego-resiliency →Career identity	.16**	.05~.27
Peer attachment→Self-esteem →Career identity	.13**	.04~.26
Satisfaction in teacher→Ego-resiliency →Career identity	.04**	.01~.09
Satisfaction in teacher→Self-esteem →Career identity	.04**	.01~.09

* p<.05, ** p<.01, *** p<.001

3.5 잠재평균분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잠재평균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able 3에 제시된 모형에 기초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의 과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40 재인용].

첫째,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먼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남학생 집단은 $\chi^2(df=155, N=222)=368.194, p<.001, TLI=.901, CFI=.919, SRMR=.067, RMSEA=.079$, 여학생 집단은 $\chi^2(df=155, N=216)=295.056, p<.001, TLI=.934, CFI=.946, SRMR=.057, RMSEA=.065$ 의 타당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한 모형에서 함께 검증한 결과 역시 $\chi^2(df=310, N=438)=663.246, p<.001, TLI=.917, CFI=.933, SRMR=.053, RMSEA=.051$ 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모형과 요인부하량의 측정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 간 비교 결과, χ^2 값 차이가 없고[$\Delta\chi^2(14)=19.900(p>.05)$], TLI, RMSEA 값 차이($\Delta TLI=.003, \Delta RMSEA=-.001$)가 거의 없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절편동일성 검증 결과, χ^2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만[$\Delta\chi^2(20)=43.140(p<.01)$], TLI, RMSEA 값 차이($\Delta TLI=-.001, \Delta RMSEA=.000$)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절편동일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χ^2 값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Delta\chi^2(6)=15.186(p<.05)$], TLI, RMSEA 값 차이($\Delta TLI=.000, \Delta RMSEA=.001$)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잠재평균 분석을 하였다[40 재인용].

남학생을 참조집단(0으로 설정)으로 설정하여 잠재평균을 비교한 결과, 부모-자녀 대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대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의 효과크기(d)에 기초했을 때, Cohen's d 값이 모두 .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효과크기가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42].

Table 7.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663.246***	310	.917	.933	.053	.051(.046~.056)
metric invariance	683.146***	324	.920	.931	.053	.050(.045~.056)
scalar invariance	726.286***	344	.919	.927	.054	.050(.045~.056)
factor variance invariance	741.472***	350	.919	.925	.054	.051(.046~.056)

* p<.05, ** p<.01, *** p<.001

Table 8. Differences Analysis of Latent Mean Variables

Latent variable	Male		Female		Effect size(d)	Total M
	Latent M	M	Latent M	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	2.16	.210*	2.35	.21	2.26
Peer attachment	0	3.21	-.011	3.22	-.02	3.21
Satisfaction in teacher	0	4.13	.009	4.15	.01	4.14
Ego-resiliency	0	3.03	-.092*	2.92	-.22	2.98
Self-esteem	0	3.22	-.105*	3.08	-.28	3.15
Career identity	0	2.91	-.005	2.92	.01	2.91

* p<.05, ** p<.01, *** p<.001

3.6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 측정,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chi^2(df=310, N=438)=663.246, p<.001, TLI=.917, CFI=.933, SRMR=.053, RMSEA=.051$ 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χ^2 값[$\Delta\chi^2(14) = 19.900(p>.05)$], 모형의 적합도($\Delta TLI=.003, \Delta RMSEA=-.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이 성립하는지 확인한 결과 χ^2 값 차이가 없

며[$\Delta\chi^2(11) = 19.261(p>.05)$], TLI, RMSEA 값 차이 ($\Delta TLI=-.001, \Delta RMSEA=-.002$)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11개 경로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경로를 고려했을 때는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663.246***	310	.917	.933	.053	.051(.046~.056)
Full metric invariance	683.146***	324	.920	.931	.053	.050(.045~.056)
Structural invariance	702.407***	335	.920	.930	.060	.050(.045~.055)

* p<.05, ** p<.01, *** p<.001

Table 10.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Male		Female		$\Delta\chi^2$	Δdf
	b	β	b	β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go-resiliency	.01	.03	.06*	.17	1.41	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02	.05	.01	.02	.07	1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54***	.56	.35***	.49	4.66*	1
Peer attachment→ Self-esteem	.42***	.52	.28***	.46	2.86	1
Satisfaction in teacher→ Ego-resiliency	.02	.03	.15***	.27	4.72*	1
Satisfaction in teacher→ Self-esteem	.07	.14	.10*	.20	.17	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Career identity	.02	.04	.00	.00	.18	1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11	.09	-.04	-.04	1.09	1
Satisfaction in teacher→ Career identity	.13*	.16	-.02	-.03	3.57	1
Ego-resiliency→ Career identity	.36*	.28	.50**	.40	.40	1
Self-esteem→ Career identity	.31	.20	.43*	.29	.20	1
All strains					19.26	11

* p<.05, ** p<.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모형 분석, 잠재평균분석,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에 기초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 대화,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또래애착과 센터교사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애착과 교사와의 관계 및 교사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8-21].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 교사와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지와 도움이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 간 대화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15-16]. 불일치한 이유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것과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대화 스타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 차이인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교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대화의 영향력이 적은 것인지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대화 정도, 또래애착, 센터교사만족도 모두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래애착 및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을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에너지, 긍정성, 호기심이 높을 뿐 아니라 적극적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5-26, 31-32].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때 진로정체감 형성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잠재평균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대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대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여학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집단 경로계수 크기 차이 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센터교사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영향 관계를 밝히고, 성별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잠재평균 및 구조적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관련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진로장벽 등의 진로 관련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대화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진로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대화 스타일 등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접근을 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며,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종단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 A. Lim,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career identity, achievement goal,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 pp.47-67, 2013.
- [2] E. T. Lee, J. H. Choi,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career conversation and career decis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30, No.1, pp.47-66, 2017.
- [3] S. Y. Cho, K. C.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for middle-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9, pp.325-349, 2014.
- [4] S. T. Moon, M. H. Bak,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riables, vocation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4, No.3, pp.1-22, 2012.
- [5] E. K. Kim, K.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and peer support on self-regula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9, pp.77-98,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9.25.9.77>
- [6] M. R. Park, E. J. Yang,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 pp.263-284,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1.24.1.263>
- [7] E. J. Park, Y. R. Lee, S. H. Le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capital on their career identification by parents' income strata: Focusing on third year middle school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5, pp.237-263, 201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05.23.5.237>
- [8] H. Y. In, "The associations of acculturation and hope with vocational identity among Korean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pp.161-180, 2016.
- [9] B. Y. Kim, E. B. Chang, "Influence of social withdrawal on career identity: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accomplishment value through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7, pp.31-52, 2015.
- [10] H. S. Lee, H. J. Sunwoo,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s career identity: Neglect and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6, pp.57-73, 2015.
- [11] H. Y. In, "Longitudinal changes in achievement values and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 to vocational identity across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4, pp.885-912, 2018.
DOI: <http://dx.doi.org/10.15753/aje.2018.12.19.4.885>
- [12] C. H. Yoon,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6, No.4, pp.129-154, 2015.
DOI: <https://doi.org/10.15753/aje.2015.12.16.4.129>
- [13] J. Y. Won,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xperience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2, pp.638-649,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38>
- [14] H. N. Kim, H. Y. Kim, "Effectiveness of career coach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on Jeju Island-",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0, No.1, pp.159-169, 2015.
- [15] C. S. Kang, J. H.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urveying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Jeju",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251-260, 2016.
- [16] M. S. Lee, J. U.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and self-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2, No.1, pp.335-356, 2014.
- [17] G. Armsden,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pp.427-454,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2202939>
- [18] A. Gorrese, R. Ruggieri,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5, pp.559-568, 2013.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13.04.025>
- [19] J. He, X. Chen, X. Fan, Z. Cai, S. Hao, "Profi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adolescent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94, pp.163-172, 2018.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8.10.001>
- [20] S. Y. Lee, M. S. Hong, "The effect of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 peers and the teach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by the mediation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4, No.1, pp.183-211, 2017.
- [21] H. R. Lee,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academic high school

-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3, No.2, pp.467-486, 2015.
- [22] S. J. Kwon, J. R. Park, J. Y. Kim,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3, No.2, pp.29-51, 2017.
- [23] K. I. Shin, S. J.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and friends on career maturity of technical meister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2, pp.420-431,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2.420>
- [24]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25]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1980.
- [26] D. Fletcher, M. Sarkar, "Psychological resilience: A review and critique of definitions, concepts, and theory", *European Psychologist*, Vol.18, No.1, pp.12-23, 2013. DOI: <http://dx.doi.org/10.1027/1016-9040/a000124>
- [27] E. K. Paek, E. J. Jung,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339-362, 2017.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7.09.24.9.339>
- [28] K. S. Lee, J. H. Jung, "Effects of difference of youth'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ediated effects of ego resili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4, No.4, pp.27-40, 2016.
- [29] W. S. Lim, Y. C.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arental support on the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ed by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3, No.4, pp.31-51, 2015.
- [30]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 of child's and parent's self-esteem and child's career maturity: Focused on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 pp.236-247, 2019.
- [31] W. Patton, D. A. Bartum, P. A. Creed, "Gender differences for optimism, self-esteem, expectations and goals in predicting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Vol.4, pp.193-209, 2004. DOI: <https://doi.org/10.1007/s10775-005-1745-z>
- [32] A. Hirschi, "Career-choice readines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9, No.2, pp.340-348, 2011. DOI: <https://doi.org/10.1016/j.jvb.2011.05.005>
- [33] S. J. Song, J. M. Kim, "The influence of youth activity on career maturit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4, pp.169-184, 2018.
- [34] S. R. Kim, "Difference in career compete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high school students' work experience types and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771-785,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771>
- [35] Y. Y. Son, M. Kim, Y. I. Kim, "The difference of career goals by type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 adolescences", *Forum For Youth Culture*, Vol.53, pp.33-62, 2018.
- [36] S. A. Shin, J. S. Chun,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7, No.3, pp.111-136, 2015.
- [37] M. K. An, K. L. Yu, "The Influence of parental career support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y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9, pp.73-95, 2013.
- [38] S. M. Choi, "Th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career aspir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4, No.2, pp.213-234, 2013.
- [39] <https://www.icareinfo.go.kr>
- [40] E. M. Yeon, "Relations among parental education involvement, children's career maturity,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Difference analysis of experience of victimiz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1, pp.433-456, 2018.
- [41]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1.
- [42]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8.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인출